| 현불논단 |

‘이념의 함정’서 빠져나오려면…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학과
명예교수

육사,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
공산주의 행적 이유…이념론 대두
劍 같은 이데올로기, 두 얼굴 지녀
정치적 수사 매몰시 이념 노예 전락

韓정치 지성 취약성 극명히 보여줘
연기론, 중도 철학이 필요한 시대
‘연기적 시민의식’ 함양, 불교 책무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에 관한 논쟁을 보면서 처연한 기분이 가슴에 저린다. 처연함은 아픔이 서린 슬픔이다.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보면 ‘시대와 나라를 잘못 만나서 큰 고생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어린 시절부터 머슴 생활로 시작해 의병과 독립운동으로 ‘고려 독립’의 서원을 세우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강제로 이주당한 동토의 땅 ‘카자흐스탄’에서 정미소 노동자로 1943년 사망했다. 한때 금강산 신계사로 피신하여 승려 생활을 하기도 했다. 홍범도 장군은 2021년 8월 유해로 조국 땅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육군사관학교에서 홍범도 장군의 흉상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그 이전의 원인은 홍범도 장군의 과거 독립운동 시절 공산주의 행적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육사 교육의 정체성 혼란을 막기 위해 흉상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념의 문제가 흉상 이전의 원인이다.

이념(이데올로기)은 어떤 집단에 의해 사실이나 진리로서 받아들여진 ‘통합된 정치적 신념 체계’로 정의할 수 있다. 정치적 집단행위의 밑바탕에는 항상 이념이 작용한다. 그런데 이념은 ‘칼’과 같다. 강도의 손에 쥐어지면 무서운 흉기로 변하고, 주부의 손에 쥐어지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념은 두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다. 통치자는 이념의 유혹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이념은 현란한 정치적 수사와 각종 신화의 옷을 입혀 대중을 설득하고 최면에 빠지게 만든다. 이리하여 많은 사람이 이념의 노예가 된다. 이로 인한 비극은 세계 정치사에 수없이 많다.

한국사회의 이념 논의는 일종의 사회병리학적이라 할 만큼 우리의 사고 지평을 위축시켜 왔다. 이러한 원인은 세계 냉전 구조에 한반도가 편입되면서, 이념으로 남북이 분단되고, 이념으로 6.25전쟁이라는 참혹한 동족 간의 전쟁을 치렀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적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은 흑백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정치 행위 판단의 기준과 척도로 삼게 했다. 한국사회의 이념적 논쟁은 아직도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낡은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미로를 헤매고 있다. 이를 어쩌랴. 독립운동가 조소앙 선생이 기초하고 임시정부의 기본이념이 된 ‘삼균주의(三均主義)’는 서구 이념으로 인한 분단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념은 결코 ‘무상의 덫’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장소와 시절 등 연기적 조건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일본과 대척점에 있었고 한국 독립을 지원한 레닌 공산당은 당시 독립운동의 한 방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일 것이다.

정치적 이념은 수많은 변수와 역동성을 가진 지니고 있어 하나의 용어로 대변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아직도 용어의 틀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의 논쟁은 결국 이념의 함정에 빠진 한국 정치 지성의 취약성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논란을 보면서, 붓다의 연기론과 중도의 가치가 새롭게 다가온다. 현대사회의 정치 이념들은 서구 정치사회의 투쟁의 산물이다. 이러한 투쟁의 산물인 이념들을 붓다 지혜의 틀에서 융해시켜야 할 것이다. 삶의 존엄성을 구현할 수 있는 이념적 좌표는 바로 연기론에 바탕을 둔 ‘중도의 철학’이다.

중도는 어느 한 편에 기울지 않고 양자를 포용하며 한 단계 올라설 때 가능하다. 중도는 다양한 요소를 조화로운 전체에 융합함으로써 모든 요소의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이념을 민주적인 정의 공동체를 구현하는 방편으로 쓰기 위해서 공동체 구성원의 ‘연기적 시민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리라. 한국불교의 책무가 산처럼 다가온다.



인현 스님의
제주 山房日記

유수암 태산사

제주시 애월읍에는 ‘유수암(流水岩)’이라는 마을이 있다. 이 마을 ‘유수암천(泉)’의 비석에는 “한라산 서북 나래 드리운 곳에 우뚝 솟은 절마루! 그 아래 십리에 봉소형(蜂巢形)을 이루었고 감천이 용출하니, 유수천(流水泉)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물 맑은 이 숲에 마을이 태동한 것은 삼별초가 들어오면서부터이다. 삼별초의 김통정은 고려 원종 12년인 1271년 진도삼별초가 여몽연합군에게 패하자 남해현의 유존혁과 합류해 제주로 들어왔다. 제주에는 이문경의 삼별초가 고려의 김수와 고여림의 군사를 꺾고 승기를 잡은 상태였다. 제주에 입도한 삼별초는 항바드리에 성을 쌓고 1272년부터 도서 및 연안을 공격하며 전선 구축에 나섰다. 〈유수암리지〉에 의하면 이 시기에 삼별초군과 함께 제주에 들어왔던 어느 고승이 지금의 유수암 절동산 아래 맑은 샘을 발견하고 그 언덕 아래 사찰을 창건하여 불사를 시작한 것이 이 마을의 시초라고 한다.

〈북제주군의 문화유적〉에 의하면 이 유수암리 절동산 사찰은 ‘태산사(泰山寺)’로 명명하고 있다. 유수암천 남쪽의 고대사찰 추정지에서 ‘태산석(泰山石)’이라고 음각된 비가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태산사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절동산 하단에 흐르는 유수암천을 중심으로 동·서·남쪽에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절터의 경내라고 추정되는 곳에서는 다량의 유물 등이 산포되어 있음이 확인됐다. 이 유물들 중에서 도질토기나 청자백상감편 등으로 보아 사찰 창건연대는 12세기 이상으로 소급한다. 유수암천에서 유물산포지를 지나 동산으로 오르는 길에 설치된 계단은 마을 중심부의 절동산에 사찰 건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

구전에 의하면 1273년 여원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색이 짙어진 김통정은 홀로 남은 늙은 어머니와 가족들을 이곳 유수암사지로 피신시키고, 한라산 붉은오름에서 최후의 혈전을 벌이다가 마침내 자결로서 항쟁을 끝냈다. 〈고성리지〉에 의하면 당시에 유수암사지의 감실로 피신한 그의 어머니는 “이곳에서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면 입구를 막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그곳은 말린 눈비아기풀의 불빛으로 7일 동안 밝혀졌다. 그러나 결국 그 마른 풀빛마저 꺼졌고 감실의 입구가 닫히면서 김통정의 어머니와 가족들은 그대로 그곳에 묻히게 되었다.

이런 사연으로 감실은 ‘종신당(終身堂)’이라 불리게 되었다. 비록 1987년 이 유수암사지 구역에서 발견된 비가 마모가 심하여 ‘태산석(山石)’인지, ‘태암(岩)’인지 알기가 어렵고, 작은 불상을 모시던 감실 종신당이 ‘태산감당’인지 ‘태암감당’인지도 정확하지 않으나 그곳에 서린 옛이야기는 아직도 선연한 물줄기처럼 흘러 내려오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수암리지〉에서는 감실에서 생애를 마친 여인은 삼별초가 왕으로 추대했던 승화후 온의 부인이었을 것이라고도 한다.

비 오는 날 유수천을 지나 태산사 계단을 올라 바라본 제주의 바다는 애련하다. 여·몽전쟁 당시 제주의 해안가에는 방어용 돌담이 세워졌다. 시작은 삼별초군을 막기 위해, 다음은 그들을 지킬 목적으로 돌담은 점점 길어져 제주를 둘러 ‘환해장성’이 되었다. 그 노동은 온전히 민초들의 몫이었다. 오늘도 그들의 피땀과 눈물은 곰보돌 무더기가 되어 헐리어진 채 거센 시류의 풍랑 앞에 서 있다.

〈제주 선래왓 주지〉

社說

대학생 전법으로 미래불교 설계를

상월결사 대학생전법위원회 워크숍이 성료했다. 9월 5~6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열린 워크숍에서는 400여 사부대중이 결집해 대학생 전법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천태종, 태고종 등 종단협 부회장 종단도 동참해 눈길을 끌었다. 전법위원들은 권역별로 6개 그룹으로 나눠 토론을 진행했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법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은 전법 이끌 핵심 인력 ‘키맨’을 양성이었다. 특히 동아리 회장단, 지도교수, 지도법사 양성을 주문했다. 대학의 지도교수가 있어야 동아리 창립이 가능하고, 동아리를 이끌 신실한 신심의 학생도 필요하다. 또한 불자 교수와 학생을 지도할 지도법사 역시 핵심적인 인력이다.

이를 위해 전법위원들은 학생회 회장단에 대한 집중 교육과 지원, 불자 교수 발굴, 지도법사 임기 및 지위 보장 방안들을 제안했다. 또한 대학생 전법에 대한 톡톡 튀는 아이디어들도 쏟아졌다.

이 같은 전법위원들의 아이디어에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은 대학생 전법 진흥을 위해 스스로 탁발을 통한 전법 지원을 약속했다.

자승 스님이 수차례 강조한대로 대학생 전법은 한국불교 미래를 결정짓는 생존의 문제다. 불교는 대학생들에게 언덕이 되고 힘이 돼야 한다. 이상훈 교불련 회장의 말처럼 불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불교는 아지트와 플랫폼이 돼야 하고, 이를 통해 미래세대에 맞는 미래불교를 설계해야 한다. 한국불교는 변해야 한다. 변해야 산다.

‘나란다수행관’ 제3관 개관에 부쳐

학업과 계층 포교를 위해 서울에 머무는 비구니스님들의 수행처인 ‘나란다수행관’이 최근 제3관을 개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비구니스님들이 공부와 수업, 포교를 위해 서울에 머물러야 할 경우 변변한 거처가 없어 여관이나 고시원에 머물러야 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이에 비로자나국 제선원은 지난 2018년 2월 ‘나란다수행관’을 개관하고 서울에 머무는 비구니스님들에게 주석처를 제공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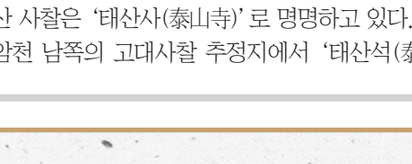
부침도 있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전세대출 규제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불자들의 단합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그래서 5년 동안 농인법회 ‘자비두손회’를 이끌고 있는 일원 스님,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에서 활동하는 범준 스님, 사찰음식을 전문화하고 발전시키는 성화 스님, 영어경전 번역과 동시통역 활동을 하는 민우 스님 등 30명의 스님들이 나란다수행관을 다녀갔다. 이를 보면 나란다수행관이 단순한 숙박이 아닌 도심 포교의 허브 역할을 하는 셈이다.

이번에 문을 연 제3관은 비구니스님들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조원희 불자가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서 마련돼 의미가 더욱 크다. 심지어 조원희 불자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접 수행관 인테리어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불교 승원의 시초인 죽림정사는 가란타 장자가 자기 소유의 숲을 헌상하고, 마가다 국왕 빔비사라가 건립한 도량이다. 기원정사는 수다타 장자가 기타 태자의 원림에 세운 정사(精舍)다. 이곳에서 부처님은 전법포교하며 불교의 기반을 구축했다.

승가가 주석하며 수행하고 법을 펼칠 도량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나란다수행관’은 승가의 수행처이자 도심 포교 허브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솔 스님 대표이사 : 혜도 스님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광고국 (02)2004-8204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FAX (02)737-0698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대 구 지 사 : 010-6780-9190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길과 내가 하나가 된다!”
- 行禪 전문 신발 -
수 행 화
■ 발을 통해 자연이 온몸으로 느껴져 행선에 적합합니다.
■ 천연 지압 효과를 통해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 발 볼이 넓어 다른 신발 대비 발가락 움직임이 편합니다.
■ 승복과 일치하는 색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부담이 없습니다.

그레이화이트
· 색 상 : 그레이화이트 (밑창 흰색)
그레이블랙 (밑창 검정색)
· 사이즈 : 233~293mm
· 특 징 : 발 볼 부터 뒷굼치까지 제로드롭 형태
밑창 두께 3mm. 맨발에 가까운 베어풋 디자인
특판가 : 45,000원 (무료배송) (사은품 : 무압박 양말 증정)

그레이블랙
Hit 어싱 슈즈 특판가 : 65,000원 (무료배송)
어싱전용 양말 증정 (재고 여부에 따라 무압박 양말 증정)
New
■ 지구와 연결되는 EARTHing 효과
■ 일반인도 편안하게 신을 수 있는 기능성 신발
· 소 재 : 도전특수고무 밑창 적용 캔버스화
· 사이즈 : 225~293mm
· 특 징 : 발바닥으로 땅의 굴곡을 느낄 수 있는 접지기능
일반신발 대비 1/10 수준의 3mm 밑창 두께

주문은 마하몰! 1688-9099 / (02)732-1520 인터넷 주문은 www.mahamall.co.kr /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